

[에버렛 스완슨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1956-03-19

일리노이주 시카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께,

저는 오늘 제 마음에 정말 깊고도 소중한 울림을 주는, 매우 긴급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 편지를 주의 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3번의 전도여행을 가본 결과, 저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추위에 떨며 얼벗은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완전히 궁핍한 노숙자가 되어 단지 생필품을 위해 구걸과 도둑질을 일삼아야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마음속에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과 같은 많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저는 이제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원 세 곳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우리 교단 신문을 통하여 관련 사진과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대구에 있는 뉴 라이프 보이즈 보육원(New Life Boys Home)에는 이전에 거지였던 100여 명의 소년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리더십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른 한 곳은 38선 부근의 동해안 삼척 부근에 있습니다. 이 페이스 앤 러브 보육원(Faith and Love Orphanage)에는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늘 아버지와 우리를 바라보는 63명의 소년, 소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뉴 라이프 칠드런즈 보육원(New Life Children's Home)은 남해안 근처 순천(구 여수)에 있습니다. 126명의 소년, 소녀가 최고의 감독하에 기독교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원하고 대전의 천막에서 생활하는 180명의 거지 소년에게 부분적인 지원을 보내왔습니다. 이 기금의 대부분은 개인, 주일학교, 학교, 청소년 그룹, 여성 단체, 교회 등에서 감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어린이 중 한 명 이상을 "입양"하여 재정 후원자로서 매월 5달러 이상을 기부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중 1/3 정도만이 후원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5달러 전액을 기부할 수 없어 그보다 적은 금액을 기부합니다. 우리는 이 금액을 늘리고 가능한 한 많은 어린이를 돌보기 위해 미지정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한국의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최근까지 많은 구호단체에서 우리 보육원에 필요한 식량, 의류 등의 물품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미군 단체가 여러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모든 것이 고갈되고 미국

단체들이 떠났습니다! 또한 달러 대비 환율이 떨어지면서 구매력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순천에 있는 우리 뉴 라이프 칠드런즈 보육원(New Life Children's Home)을 감독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 친구로부터 방금 받은 긴급한 편지에 따르면, 한국의 상황은 절박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의 원장님인 이 목사님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재 그분은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데리고 있는 모든 어린이를 계속 보살피기가 어렵습니다. 보육원 직원들은 3~4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학비는 밀리고, 장작도 매우 부족합니다. 이제 한 달 반 동안 버틸 수 있는 정부 배급(쌀)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어 그는 "3월 말쯤, 무언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많은 어린이를 내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에게 빨리 편지를 보내 상황을 알려드리겠다고 이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곳이 한국의 그 어떤 보육원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혹은 더 좋은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기독교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어린이들 중 단 한 명도 다시 거리로 내보내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들을 돌보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 땅에서 강한 기독교 지도자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나라를 돌아다니는 더 많은 어린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확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월 5달러(또는 그 이상)를 보낼 수 있고, 이 소중한 어린이들 중 한 명을 온전히 "입양"하여 후원자가 되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과 단체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스토랑에서의 식사와 쾌락, 사치품 등을 위해 매달 그 이상을 지출합니다. 최근에 한 어린이를 "입양"한 청년은 그동안 밀크셰이크를 사는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부디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하고 상의해 주시고, 다음 가능한 한 빨리 동봉된 회신용 봉투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저는 친구들로부터 소식을 들을 때까지 고아들을 데리고 있기 위해 300달러를 긴급 보조금 명목으로, 방금 항공편으로 보냈습니다. 최근에 찍은 소중한 두 어린이의 사진 한 장을 동봉합니다. 그들을 다시 거리로 내보내 구걸하게 하고, 병들어 결국 죽게 하시겠습니까? 이 소년, 소녀는 아직 "입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입양하시겠습니까? 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의 전도 사역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놀랍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기뻐해 주십시오. 최근 막 마무리한 6주간의 집회를 위해 저는 샌프란시스코 및 워싱턴주의 호퀴엄(Hoquiam)과 타코마(Tacoma)를 방문했으며, 약 200명의 확실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밤 죄인들이 회심했습니다. 가톨릭 신자, 술꾼, 흡연자, 창녀, 도박꾼, 성도착자 및 기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으며, 두 명의 뛰어난 축구 스타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합니다.

다음 집회는 미시간주 데겟(Daggett), 일리노이주 소모노크(Somonauk), 워싱턴주 벨링햄(Bellingham)과 마운트 버넌(Mount Vernon)에서 진행됩니다. 그런 다음 미시간주 그랜드 헤이븐(Grand Haven), 몬태나주 그레이트 폴스(Great Falls), 아이다호주 코달레인(Coeur d'Alene)으로 갑니다. 여름과 가을에는 아직 여유가 좀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소생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비통의 땅”인 한국에 있는 이 소중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이 하신 일과 앞으로 또 다른 분들이 하실 일에 대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자 에버렛 F. 스완슨 올림

추신 1.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기꺼이 도와줄 친구나 단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주위 사람들이 20페이지 분량의 <Korea Crusade> 화보(9x12크기, 125장의 사진으로 구성됨)을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이 화보를 통해 보육원, 부흥집회에 참석한 엄청난 인파, 한센병 환자 등을 포함한 한국에서의 사역에 대한 열정적이며, 도전적인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기부금이 소득세 목적으로 공제될 수 있도록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독교 변호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수표는 스완슨(E.F. Swanson) 목사를 수취인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추신 2.

우리는 여전히 헌 옷이 필요합니다. 아래 주소로 직접 보내주십시오.

- 수신: 에버렛 F. 스완슨(Everett F. Swanson) 목사/ 로버트 라이스(Robert Rice) 목사
- 주소: 대한민국 대구 원산동 장로교 선교회